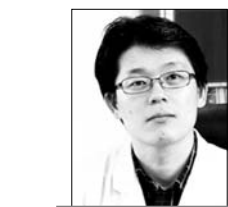


건강 칼럼

코로나19 예방 접종 아나필락시스 대처하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 2,000명을 넘어서면서 전국 동시다발 확산 세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강도 거리두기에 이어 대응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바짝 조이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방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알아본다.

▲ 아나필락시스란?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으로 사립에 따라 특정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갑작스럽게 온몸에 중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다.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코로나 예방 접종 후에



김 이 언
구암한의원장

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30분간 관찰해야 한다. ▲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아나필락시스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피부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홍조(붉어짐), 입술·혀·목젖의 부종 등이 있다. 호흡기 증상으로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 기침, 천 목소리, 호흡곤

란, 가슴답답함, 책책거리는 소리 등이 있다. 소화기 증상으로는 복통,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다. 신경계 증상으로는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 증상, 실신, 의식저하 등이 있으며 심혈관계 증상으로는 저혈압, 빠른 맥박, 심장박동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일부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다. ▲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119에 연락을 취하거나 주

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동네 의료기관이나 요양원 등의 응급 처치 약물이 있는 곳이라면 에피네프린을 주사하고 시간을 기록한다. 다리를 올려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산소가 있으면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이후 의식이 되풀이오고 안정화 된다면 다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심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반응은 30분 이내 나타나지만, 귀가 후에도 알레르기 반응(눈물, 콧물, 입술주위나 눈의 가려움증, 재채기,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후 사라지면 상관없으나 계속될 경우 항히스타민제 등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게 좋다.

사설

대선 후보들의 언어

대선 예비후보들의 말이 종종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말잔치에서 박수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정치의 본질은 소통 능력이다.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하다. 말실수가 잦은 어느 후보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때를 돌아보는 얘기를 자주 한다. 그마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전하고 있다. 정부를 비판해온 기존의 관성에서 계속 정치적 자산을 구하며 방어적인 말을 하는 것도 보기에 답답하다. 정치인의 무기는 언어다. 그들의 말은 때로 칼보다 날카로우려 한다.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 세상을 움직여야 한다. 후보들은 때로 인격 살인에 가까운 네거티브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공격이 가해지면 자기방어의 언어부터 튀어나온다. 지적 당하면 부인하고 되받아치기 마련이다. 이럴 때는 확실성의 말이 차라리 낫다. 정치가는 말로

살고 말로 죽는다. 그만큼 정치가의 말은 무게감과 책임감이 따른다. 선거 때 말을 잘못해 콧매를 맞고 낙마한 사람들도 있다. 반면 말을 잘해 성공한 사람도 있다. 촌철살인(寸鐵殺人)의 대가(大家)로 대단한 인기를 끌기도 한다. 언뜻은 약의적으로 비틀어 특정 후보에게 프레임을 씌우기도 한다. 정치가에게 언어는 가장 유용한 무기다. 그러나 그 무기는 정의로워야 하며 실속이 있어야 한다. 그저 형식적으로 뽀는 말은 진정성이 부족해 지지자들이 돌아선다. 자극적 발언과 지나친 공격성 발언은 후유증을 남긴다. 자신이 말을 했을 때 일부 언론이 어떻게 왜곡할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떻게 한 방에 잠재울지를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토론은 상대를 말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쉽고 감동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비수처럼 꽃말들을 자주 던지면 안 된다.

2021 전라북도 통일대장정의 의미

광복 76주년 기념과 한반도 평화통일 및 코로나19 극복 기원 One Korea 피스로드 2021 전라북도 통일대장정 행사가 16일 전라북도 도청 광장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피스로드 2021 조직원위원회와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그리고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남북의 평화통일 시대 도래와 세계평화 실현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자전거 증주는 도청 광장 행사장에서 출발해 전주종합경기장 청소년 광장까지 이어졌다.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연결함으로써 세계 도처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어 지구촌 평화 시대를 열자는 원대한 뜻을 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움직임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었다.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남북이 밀사를 보내는 방식으로 의견을 교

환했다. 이를 토대로 통일에 대한 대원칙 이른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발표를 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몰락은 20년 가까이 멈춰 있던 남북통일에 대한 갈망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체제 유지에 불안감을 느껴서 국면 돌파를 모색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다시 남북통일에 대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상의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 이후 남북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남북화합을 위해 크고 작은 노력을 할 뿐이다. 2000년에는 최초로 남북의 지도자가 한 자리에 만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통일대장정의 활동은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냈다. 해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때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시작한 우루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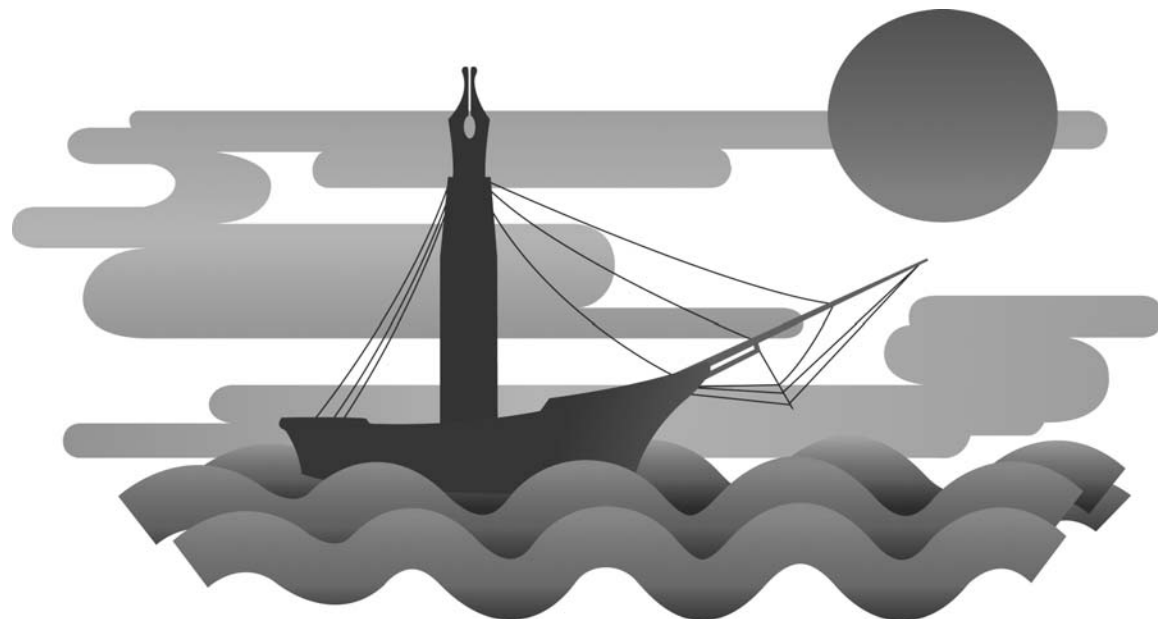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16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의 인텔 경기장에서 시민들이 화이자 백신 3차 접종(부스터 샷)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우루과이 보건부는 백신 2회차 접종을 마쳤더라도 중국 시노백 백신을 맞은 경우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승인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이스라엘 대규모 산불 이틀째 '맹위'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소방 당국은 이틀간 맹위를 떨치고 있는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45개 소방대와 10개 항공기 투입했으며 국제사회의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은 불발터위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